

‘대안학교’ 남의 일 아니다

각종학교 인정 법제화 눈앞... “교육 다양화·포교 위해 운영해야”

개신교 20·원불교 6곳, 불교계 ‘작은학교’ 가 유일

비인가 대안학교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교의 교육이념이 대안학교의 교육이념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대안교육 인식은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미술·예술·외국인 교육 등의 특수교육을 법적으로 인정,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확정된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도 관련법 개정

은 물론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법률안 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입시교육’ 위주로 흘러 인성교육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교육 체계다. 입시위주의 공교육에 부처음,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종교계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종교계가 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해 학생들이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교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 권리를 수호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아직까지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

단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어떤 공론화된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진각종 관계자도 “한 차례 안건으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반면 개신교와 원불교는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대안교육에 힘써왔다. 이들 종교들은 교육 참여와 포교활동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인재양성과 교리전도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대안학교 2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터학교’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다. 개신교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불교에서는 대안학교 개념이 들어온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 6개의 학교를 개교했다. 원불교는 주로 공교육 부처음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사회 불신 해소 방법을 원불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남원 실상사 ‘작은 학교’가 유일하다. 2001년 개교한 ‘작은 학교’는 10명의 교사들과 지역주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를 바

탕으로 생태주의적·연기적 학습 방법으로 주목받는 대안학교다.

‘작은 학교’ 학생 38명 중 절반 수에 가까운 15명 이상이 타종교 학생이라는 점은 불교의 넓은 포용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불교계 대안학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조계종만 해도 교구 분사가 몇 개인데, 대안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점을 통해 불교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대사회 활동을 왜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실상사 ‘작은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불교계 인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데 입장을 함께 한다. 이들은 우선 각 종단별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타종교의 대안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불교 이념에 맞는 대안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특히 원불교 대안학교가 불교계가 눈여겨 볼 좋은 사례다. ‘마음공부’와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운영 체계도 참고할만하다. 원불교 대안학교들은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인가를 받은 후 학교제도의 개념인



1930년대 송광사 수석정(水石亭)과 그 주위 호수 모습을 담은 역사사진. 수석정에 기기위해 스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다.

사진속의 송광사

순천 송광사주지 영지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계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구상·효봉·일각 스님과 송광사 스님들의 소망 훈연 모습 등 총 12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실 벽에 걸린다. 개막식은 11월 3일 오후 5시에 봉행된다. (063)755-0108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내달 3일부터 불일미술관에서 ‘흔적, 그리고 일깨움’ 역사사진전

새·롭·다 buddhanews.com

동영상 뉴스 서비스... “한발 앞서 갑니다”

붓다뉴스가 확 달라졌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간인터넷 현대 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가 10월 15일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불자네이션에게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2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간편하고 쉽게 바꿨습니다. 또한 한번 클릭으로 실시간 뉴스뿐만 아니라 현대불교신문의 기획기사, 연재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뉴스’ 및 ‘영상법문’ 코너를 신설해 매일 동영상 뉴스 및 법문을 서비스합니다.



메뉴선택 기능 쉽게 정보 콘텐츠 대폭 보강 김홍근의 ‘참선일기’ 새기획

새로 신설된 ‘김홍근의 참선일기’는 재가불자가 어떻게 참선수행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과정을 기록할 예정으로 초심자에게 매우 유익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불교문양을 현대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새단장한 화려한 역사네이션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조계종 ‘인권위’ 설치한다

20일 설치령 입법예고... 위원 10인 규모

조계종 내에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권활동을 통해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치된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10월 20일 인권위원회 설치령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위는 △종단 인권활동 정책 수립 및 자문 △불교내외 인권 사안 대응 및 실천 활동 △인권 연구 및 교육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총단과 관련된 각종 인권단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인권위가 종단 내 기구로 설치

됨에 따라 불교인권위원회 등 재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교인권 운동에 새 장이 열렸다.

또 천주교측에서 주도해왔던 사형제 폐지 운동 등 대사회 인권운동에 불교계 역할과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부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회부장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계사 불사에 ‘금일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10월 21일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해해(홍통사, 1000만원), 수현(한흥사, 500만원), 해선(금용사, 300만원), 무관(조계종 총무부장, 100만원), 지원(사회부장, 100만원), 일관(포교원 포교부장, 100만원), 상덕(정수암, 100만원) 스님을 비롯해 신주안, 황보희, 김명순, 임명희, 한광일 불자들도 복원불사 모연에 동참했다.

강진기 기자 kangj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할’

친구한테 오미자 맛있게 먹어주세요

말로 설명하고 전할까?

웅지! 직접 맛보아야

오-경전분량이 방대하다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마음이야

그림·조태호

혜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飛龍山 장안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국민안락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전국에 세계의 국찰 장안사를 세웠으니 금강산, 불광산, 그리고 이곳 비룡산 장안사가 그곳이다. 문무왕 수증왕릉이 위치한 감포 앞바다를 바다의 용궁이라 부른 반면 여기 장안사가 위치한 예천 용주골을 육지의 용궁이라 전하여 온다.

항가 번역 보급의 사찰

용궁이 내려 보이는 사찰

고유의 법향이 풍기는 사찰

장안사 회룡대에 아미타 짝불을 모시고, 경북 일대 미타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4년 10월 31일 - 1부 봉안식 : 오전 10시 ~ - 2부 봉축공연 : 오후 1시 ~

항가는 짧지만 삶에 관한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읽을수록 맛이 납니다. 항가는 한국인 정서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라 화랑도구가 자신이 따르던 죽지랑이 죽은 뒤 영전에 바쳤다는 ‘모죽지랑가’를 비롯하여 현존하는 항가 25수를 정리한 68쪽짜리 책자 30,000여권을 문경 예천지역 중·고등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배포 시 하였습니다. ‘삼대목(三代目)’이라는 항가집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내용을 알 수 없고 남아 있는 25수라도 널리 읽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연락주세요. 최소 법보시 비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안사 주지 지정 함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얼어지고 거꾸러지고
보리(藜) 향한 길을 잃고,
지는 업장 법계(法界)에 넘치니
정계(淨戒)를 내세워 넘어보자.

오늘 간절한 참회를
시망 부처님을 증명하시어!

아! 중생계 다하면 내 참회도 다하리니
세생생생 참회하여
티끌세상 제도코저

비룡산 장안사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전화: (054) 655-1400 ~ 1